

히로시마현 저출산 · 인구감소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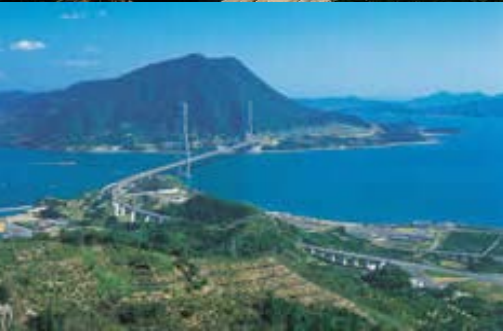


히로시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

목차

- I 히로시마현 개요, 미래 비전
- II 인구 추이와 저출산·고령화
- III 저출산 대책
- IV 히로시마현 대응

I 히로시마현 개요 ~기본정보~



- 총인구 284.4만명 (경상북도 수준)
- 면적 8,479km² (충청남도 수준)
- 현내 지자체 수 23시정
- 합계특수출생률 1.57
- GDP 10조8536억엔
- 평균소득 300.4만엔



[출처]
2015 인구총조사
2014 국토지리원조사
2015 인구동태통계조사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이 공존

서일본 유수의 산업거점으로 발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이 집적

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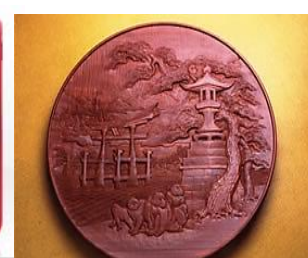
- 조선
- 철강
- 자동차

첨단산업

- 전자기계
- 전자부품
- 디바이스

전통적 공예

- 쿠마노후데
- 미야지마 세공 등



히로시마현의 미래 비전

기본이념

장래에 걸쳐

“히로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직장을 이곳에서 얻어서 잘 한 것 같다고 생각 할 수 있는 히로시마현을 실현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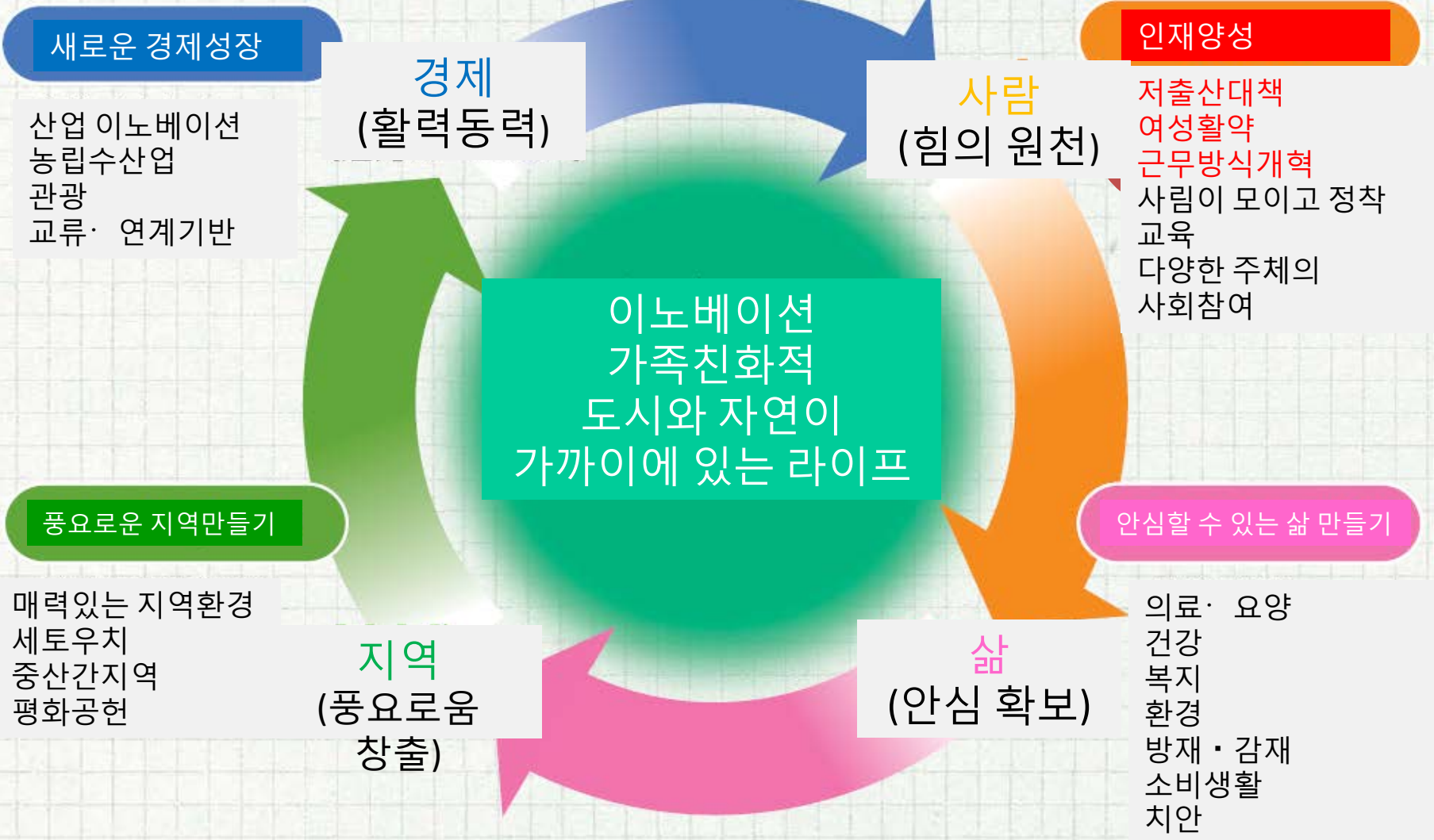
향후 5년간 미래 비전을 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

일에 도전하라! 삶을 즐겨라! 활기 넘치는 히로시마현
~ 일도 삶도. 욕심쟁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

일과 삶의 밸런스를 생각 할 때, 삶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남겨놓고 집에 와서 가사 시간을 확보하는 등 어느 한 쪽을 우선시하고 타협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말고 추구할 수 있는 “욕심쟁이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4가지 정책분야의 호순환

▶ 4가지 정책분야의 호순환을 만들어 냄으로써 현민 한 사람이 안고 있는 희망을 “히로시마에서라면 이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 산업 이노베이션
- 농림수산업
- 관광
- 교류·연계기반

경제
(활력동력)

인재양성

- 저출산대책
- 여성활약
- 근무방식개혁
- 사람이 모이고 정착
- 교육
- 다양한 주체의 사회참여

사람
(힘의 원천)

안심할 수 있는 삶 만들기

- 의료·요양
- 건강
- 복지
- 환경
- 방재·감재
- 소비생활
- 치안

삶
(안심 확보)

풍요로운 지역만들기

- 매력있는 지역환경
- 세토우치
- 중산간지역
- 평화공헌

지역
(풍요로움
창출)

이노베이션
가족친화적
도시와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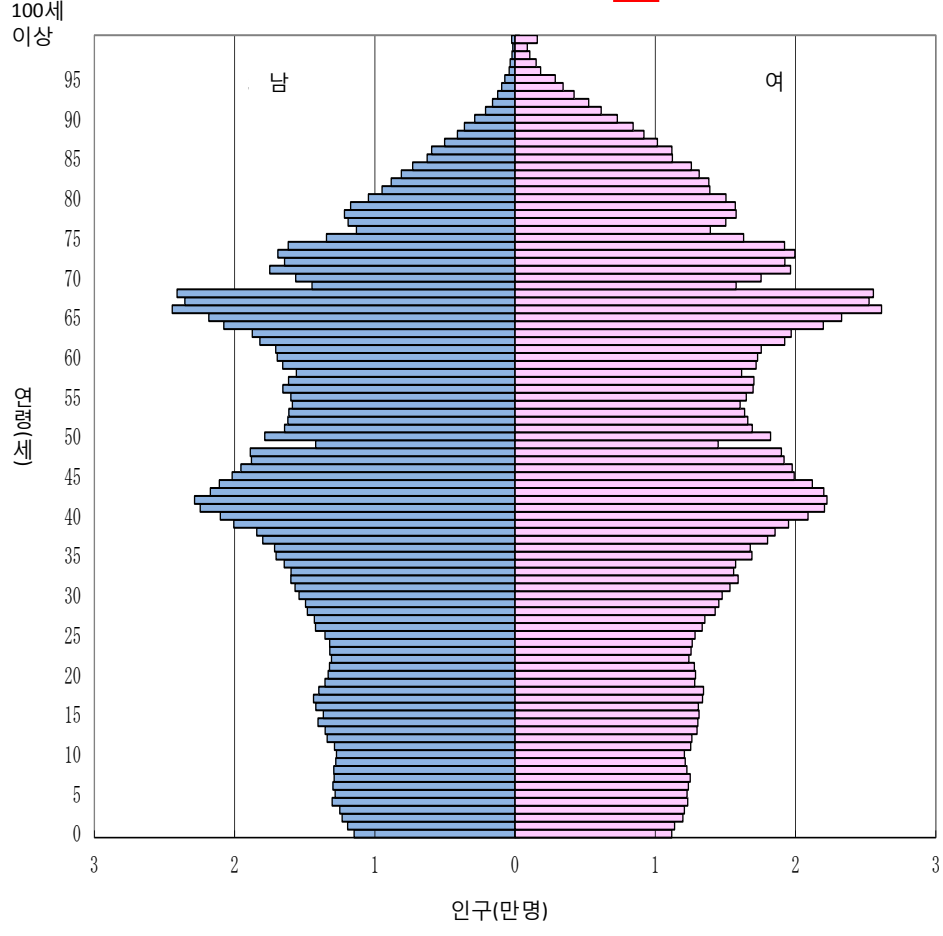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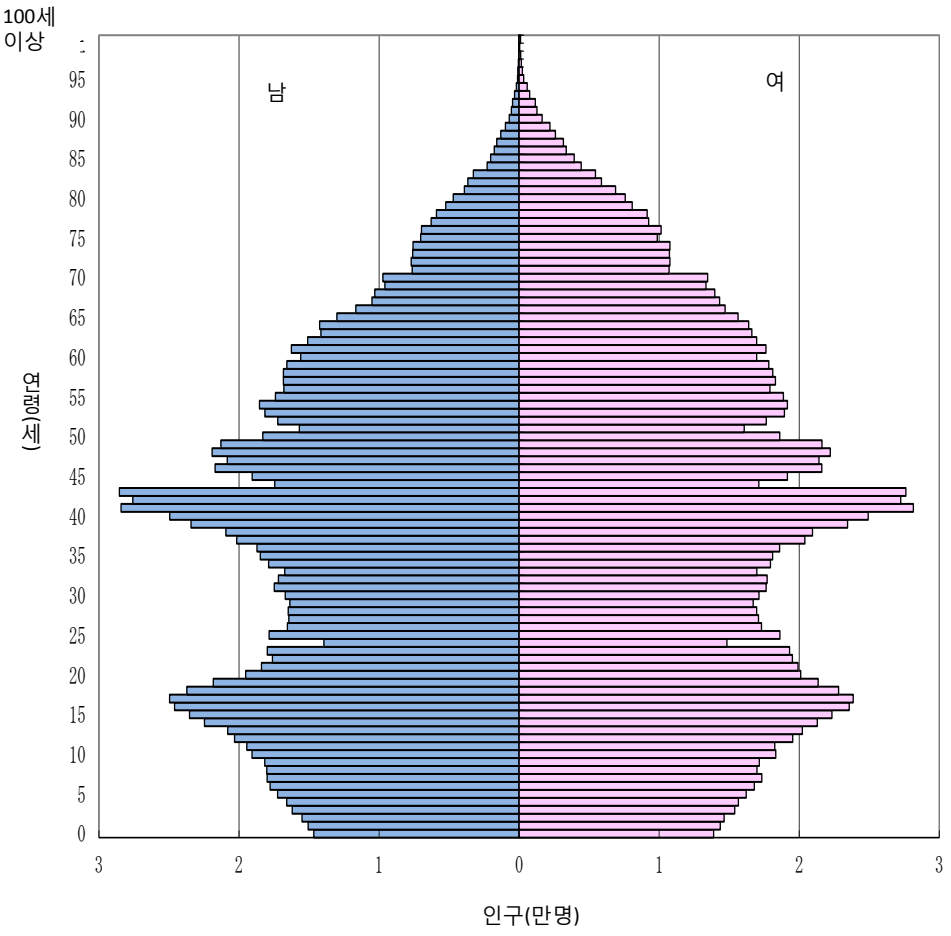
II 인구추이와 저출산·고령화

히로시마현의 인구 피라미드 산은 25년간 크게 고연령층으로 이동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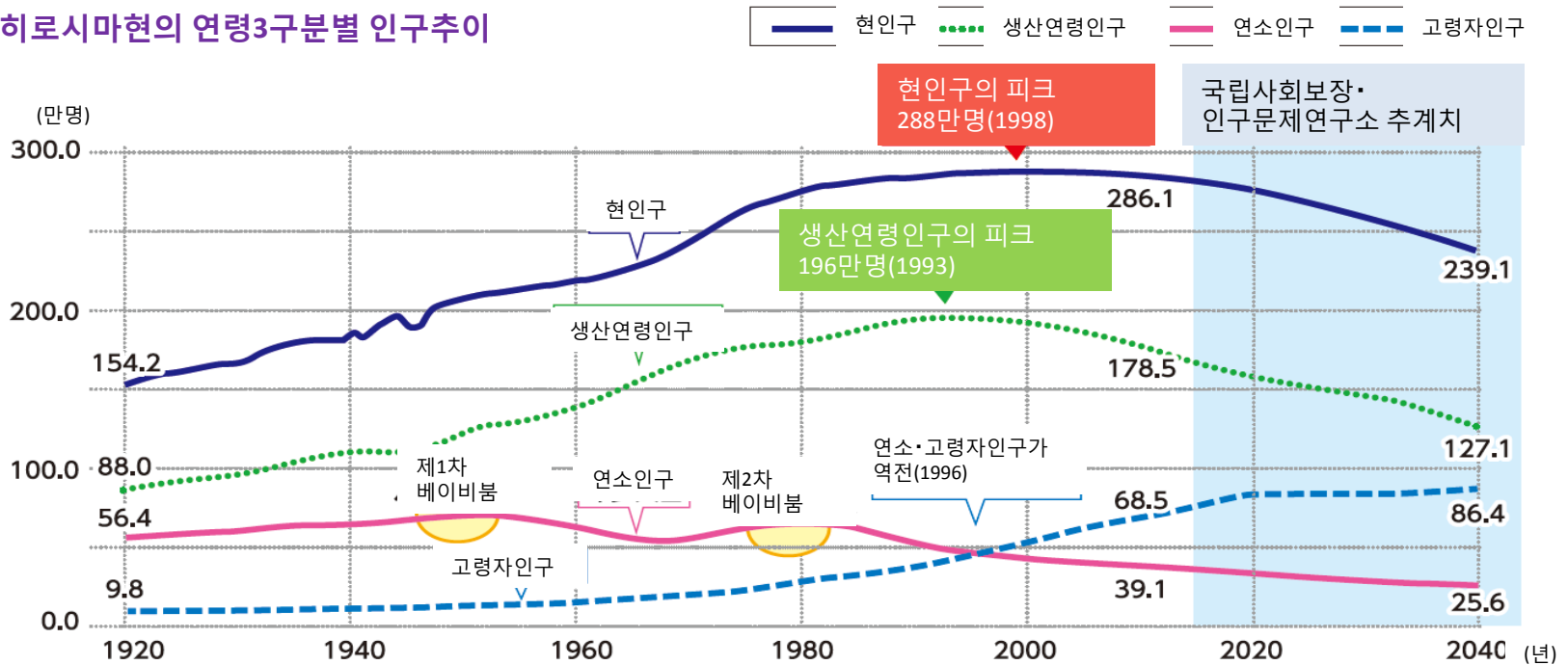
2015년



히로시마현의 인구 추이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총인구는 47만명, 생산연령인구는 51만명 감소. 고령자 인구는 18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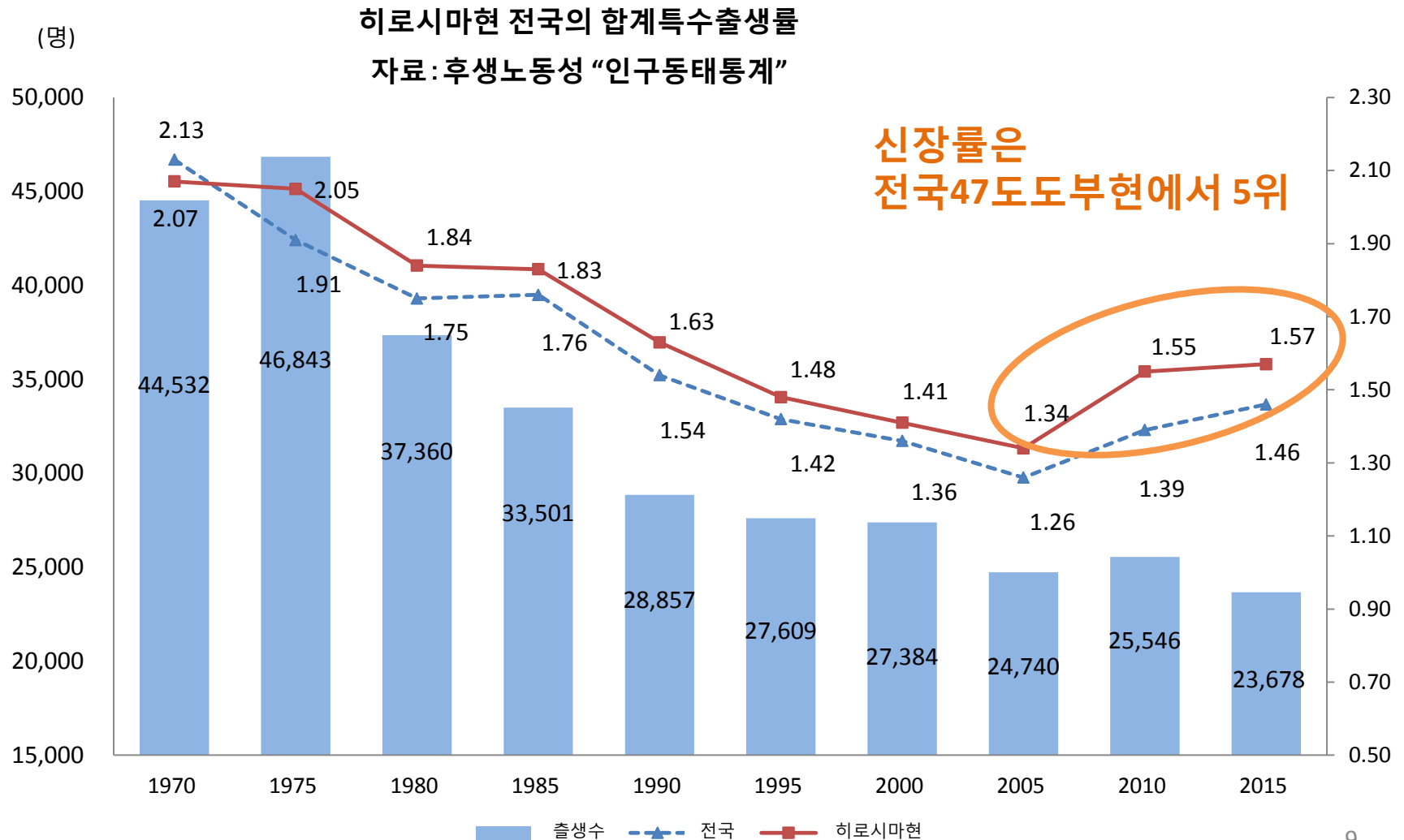
히로시마현의 연령3구분별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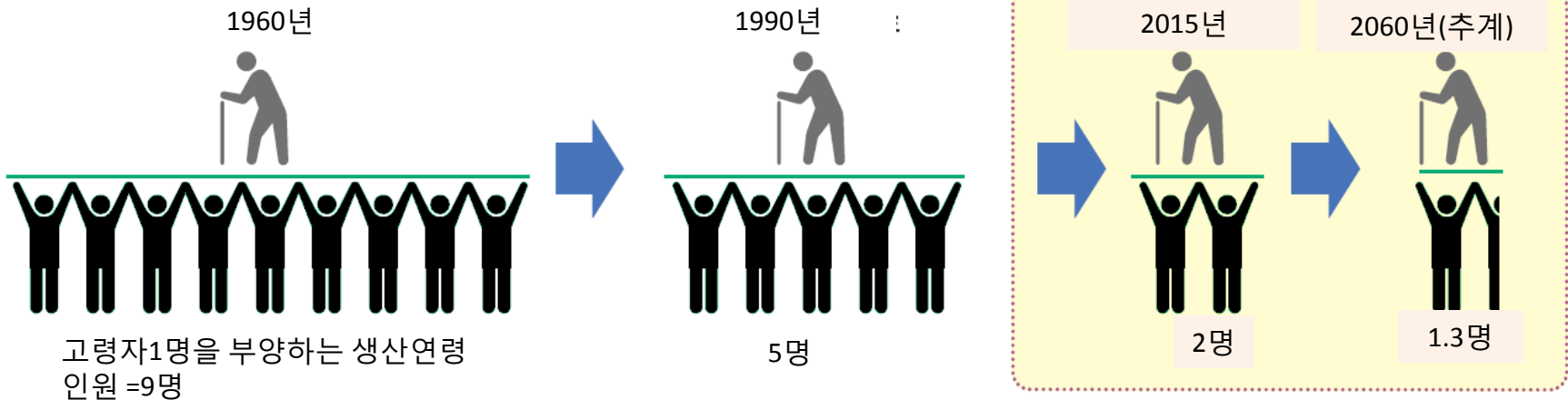
구 분	2010	2040	변화
연소인구 (0~14세)	13.7%	10.7%	▲ 14만명
생산연령인구 (15~64세)	62.4%	53.2%	▲ 51만명
고령자인구 (65세이상)	23.9%	36.1%	+ 18만명

연소인구의 감소 ~저출산화~

출생수는 감소. 육아지원 강화에 따라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부터 회복세



2060년에는 현역세대 1.3명이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회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경우, 소비시장으로서의 상대적 매력을 상실함으로써 대인서비스 관련 직종을 비롯한 기업의 해외 진출 진행이 예상됨. 그 결과 노동시장은 축소되어 실업과 인구유출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축소를 더욱 초래하는 “부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질 우려가 있음.

고령화에 대한 대책~”지역의료구상”

초고령사회가 진행 됨에 따라 의료·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까운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가 급선무

병상 기능의 분화 및 연계 촉진

- 병상 기능의 분화 및 연계 촉진
- ICT 활용에 따른 의료·요양 연계체제의 정비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확립

-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의 확립
- 재택 의료의 내실화
- 요양 서비스 기반의 내실화와 요양 예방 추진
- 고령자용 다양한 주거 확보와 일상생활 지원
- 치매 시책의 내실화

의료·복지·요양인재 확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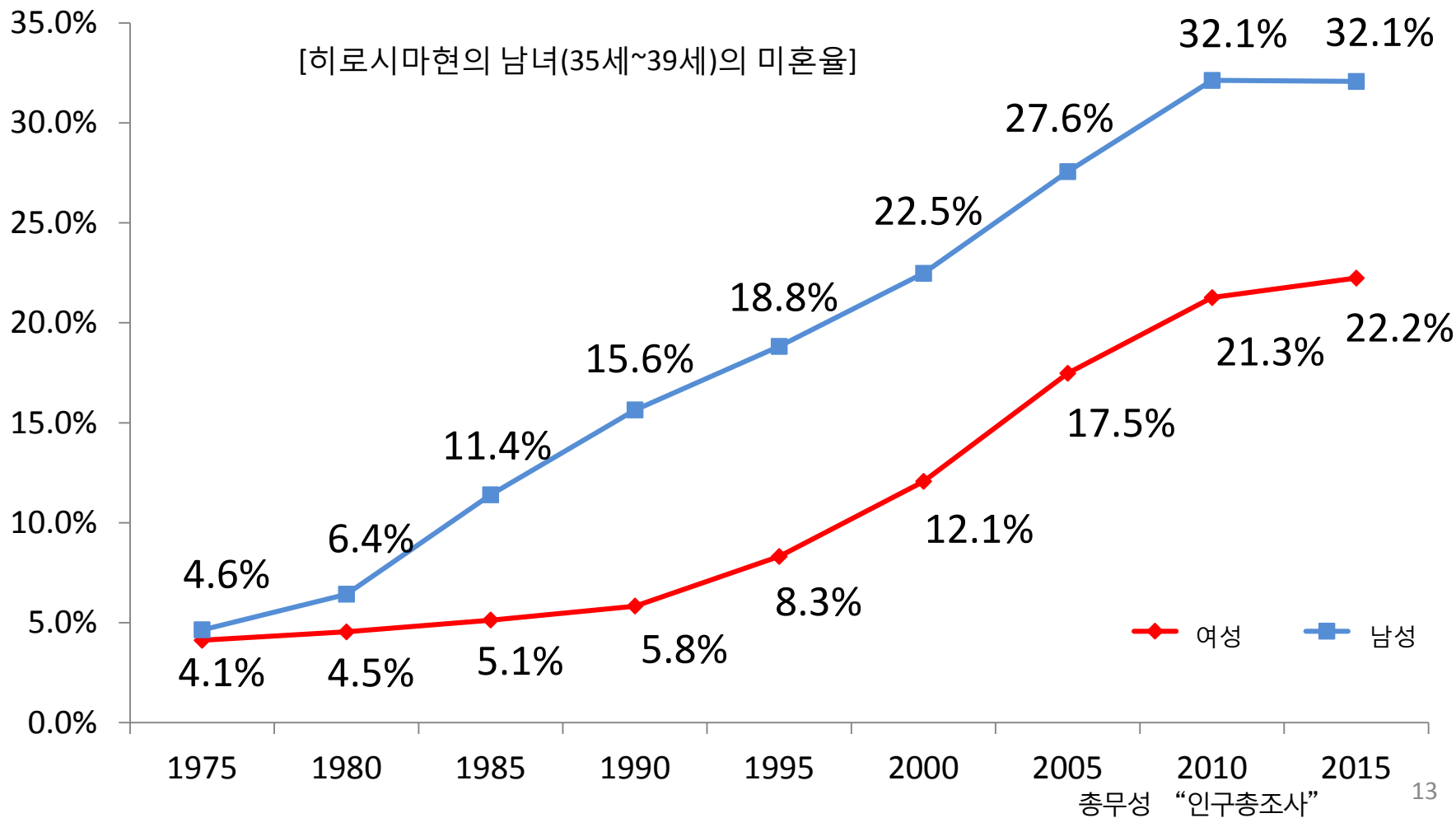
- 의료인재 확보·육성
- 복지·요양인재 확보·육성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요양제공체제 실현



과제분석 ① 미혼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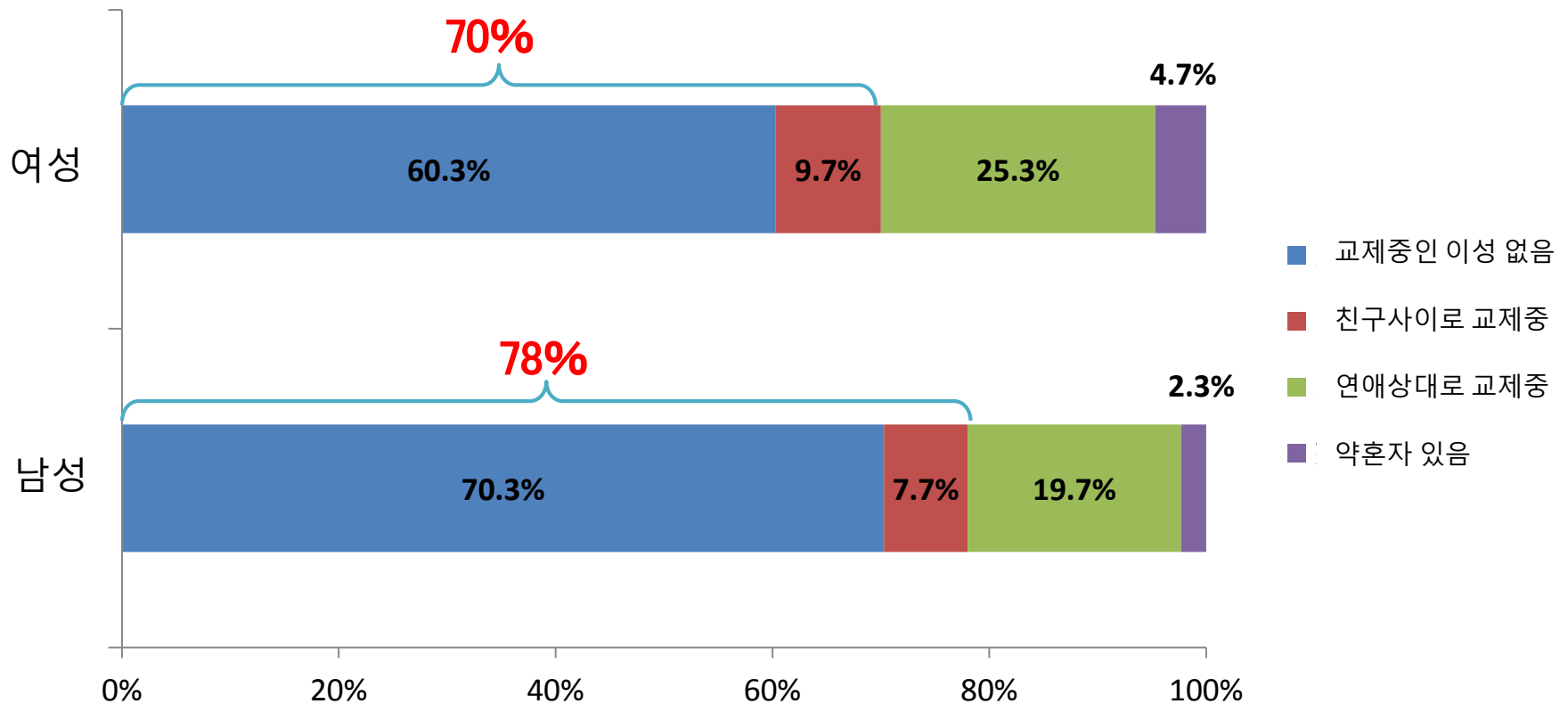
■ 미혼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만남자체가 없음**



과제분석② 독신남녀의 교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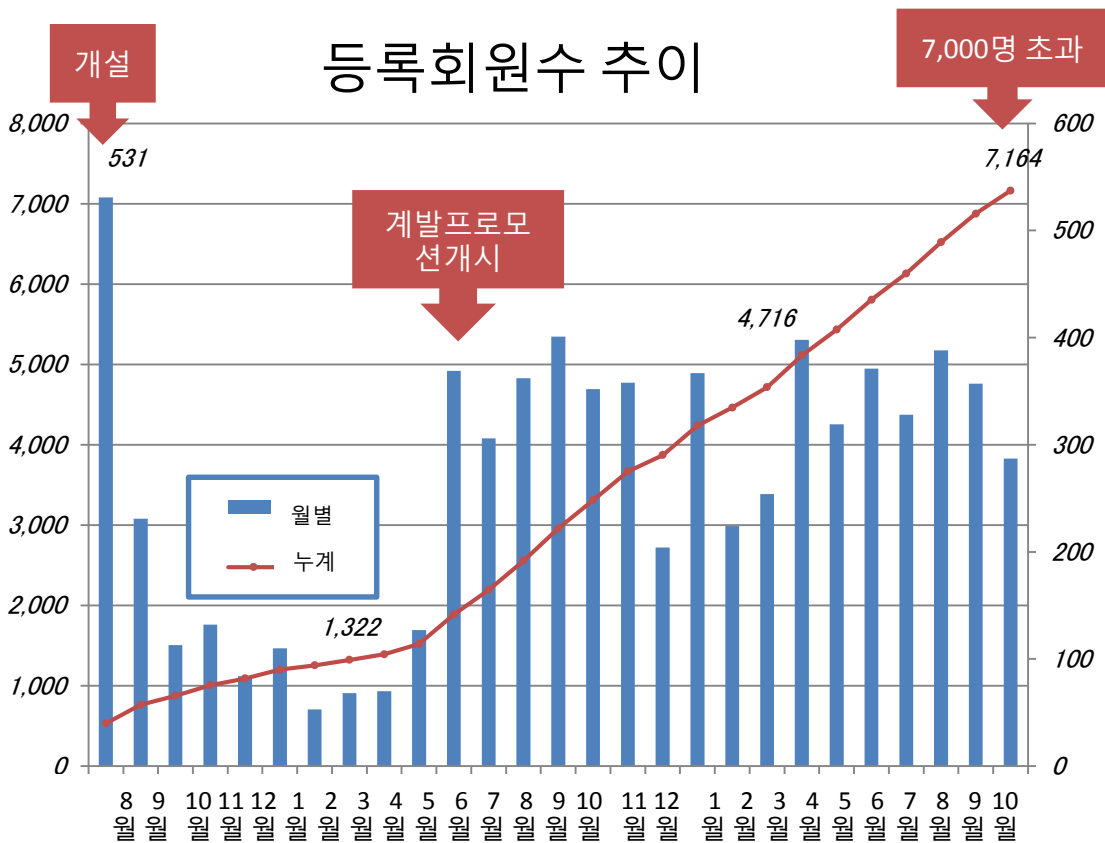
■ 25세~39세의 독신자 조사에서는
여성의 약70%, 남성의 약80%가 연애상대가 없다

<독신남녀 (25세~39세)의 교제상황>



히로시마 만남 서포트센터” (2014년 8월 개설)

- 결혼을 바라는 남녀에게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거점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 지역과 기업의 “참견쟁이역” (자원봉사) 양성하여 활동을 지원



<사원의 결혼을 응원하는 기업 등록을 촉진>

- 기업 담당자 세미나 실시
- 독신남녀 교류회를 개최

2016년 7월 기업간 교류 워크숍

지역의 자원봉사 양성

■ 결혼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를 “히로시마 만남서포터즈”로 현지사가 임명하여, 그 활동의 지원

<임명단체>

26단체

<활동실적>

이벤트수: 50회

이벤트참가자 약: 2, 009명

매칭된 커플수: 224쌍



평균연령65세의 여성그룹이 젊은이들의 결혼을 서포트

■ 개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이벤트에서 참견역을 하거나 이벤트 후에도 지속적 만남을 가지도록 도와줌 51명을 임명(2016.10 현재)



모두가 참견하는 “사랑의 끈 프로젝트”를 전개 (2015.6 ~)



■ 결혼하지 않은 이유 “만남이 없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내 각지에서 만남을 창출하는 이벤트를 개최

<타겟을 좁혀 사업전개>

【200명 규모】

청년 한정 이벤트로 결혼활동의 장으로
참가 독려

【40명 규모】

레스토랑 등 경영자가 주체가 되어 결혼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을 매칭

【시정과의 연계】

노하우 제공과 집객·홍보를 서포트



2016년 4월 레스토랑 이벤트



2016년 4월 프로야구응원이벤트

약1년 반 동안
결혼에 성공했다는
커플도 20쌍
이미 자녀도 탄생

현 이벤트에 약3,300명이 참가, 497쌍의 커플이 탄생 !

모두가 참견하자 “사랑의 끈 프로젝트”의 전개 (2015년 6월~)

<계발 프로모션>

【매스 미디어의 활용】

현 출신의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임팩트있는 홍보와 이벤트를 열어,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서 만남과
결혼지원시책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함.

【분위기조성】

독신자 뿐만 아니라 현민 전체가
응원하는 분위기조성을 도모하고 현내에
참견쟁이역을 늘린다.。



계발 포스터

결혼지원 인지도15% 상승 현조사 2015년 6 월39%⇒11월54%)

“사랑의 끈 프로젝트” 서프라이즈 효과

현사업이 리얼하게 영화화! “사랑의 끈~결혼활동크루징”



히로시마현 결혼지원사업이 영화 타이틀로 결정!
2017년 가을 상영 예정

<촬영지> 히로시마현내

<포인트>

- 독신자들에게 참견하는 현 직원역이 대활약!
- 현청회의실에서 촬영 실시



【주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우】

<줄거리>

돈도 시간도 있는 유복한 한 남성이 인생 파트너를 찾아 선과 현 주최 결혼활동이벤트에 참가.

여기서 만난 여성과의 인간 관계를 그리면서 남에게 참견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깨닫게 된다.



【해변에서의 촬영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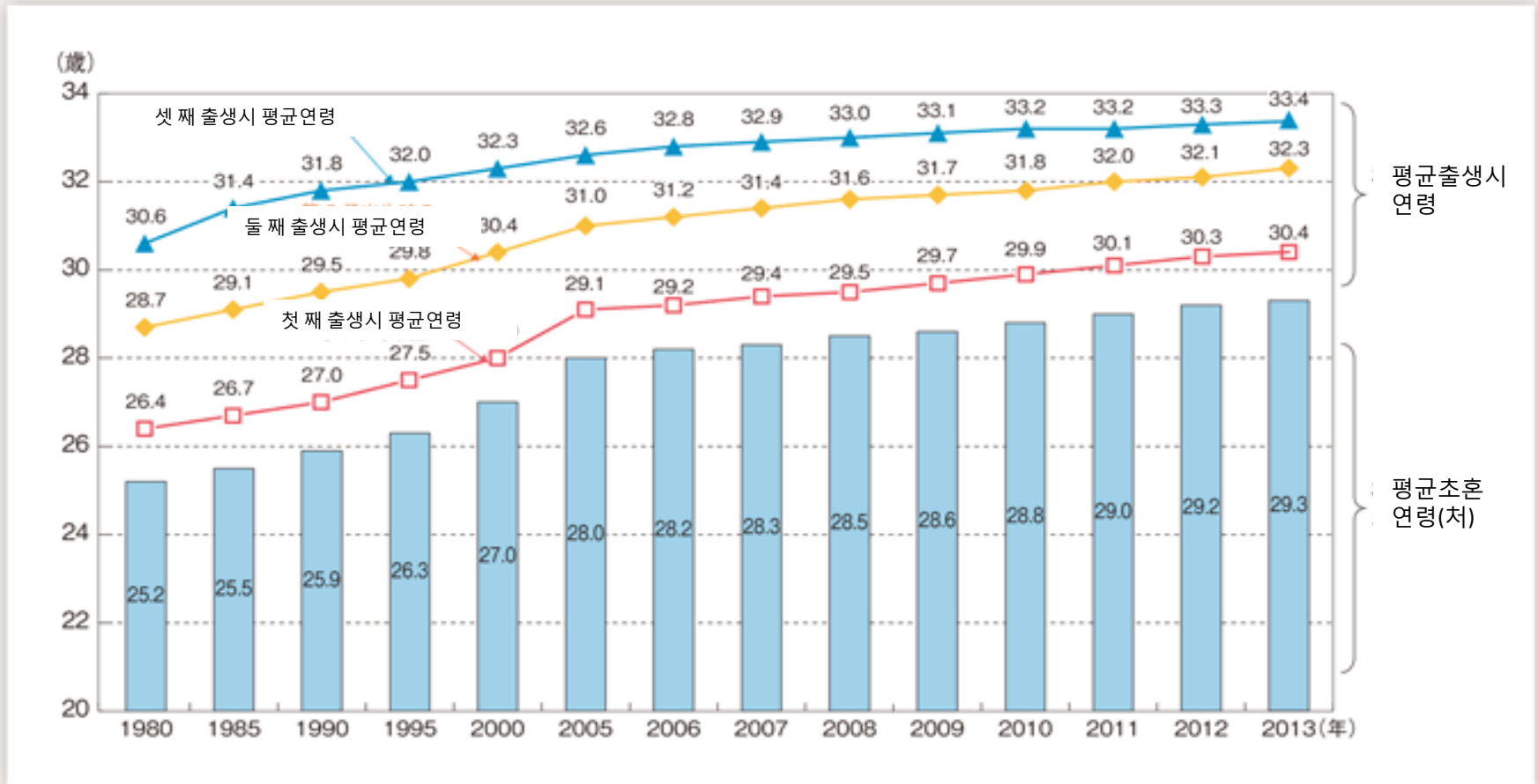


【캐스트된 지사 시상 모습】

임신·출산지원

과제분석① 평균초혼연령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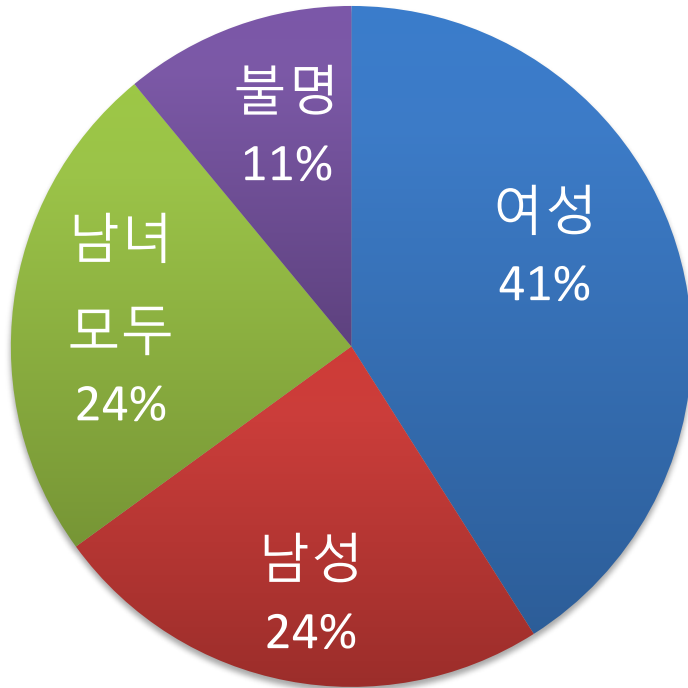
■ 평균초혼연령은 상승세이며,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가 진행중



과제분석②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증가

- 불임원인의 반은 남성에게 있으나 남성의 의식수준은 낮다
- 불임치료의 성공률은 연령이 올라갈 수록 급격히 저하

불임원인의 비율(남녀별)



2010년 WHO데이터

불임치료중인 환자의 성공률

연령	성공률	치료횟수 이미지
30세	21.8%	
35세	17.3%	6회째 성공
40세	8.1%	13회째 성공
45세	0.7%	140회째 성공

일본산부인과학회
2012ART데이터북

경제적 부담 경감

<특정불임치료비의 조성>

건강보험적용외 치료비
(체외수정·현미수정)비율을 조성
(최초1회 상한45만엔)

<불임검사비 등 조성>

35세 미만의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반불임치료비용을
조성 (상한5만엔)

보급개발·상담체제의 내실화

<세미나&상담회를 개최>

2016.6~11

현내 7곳에서 전문의의 강연·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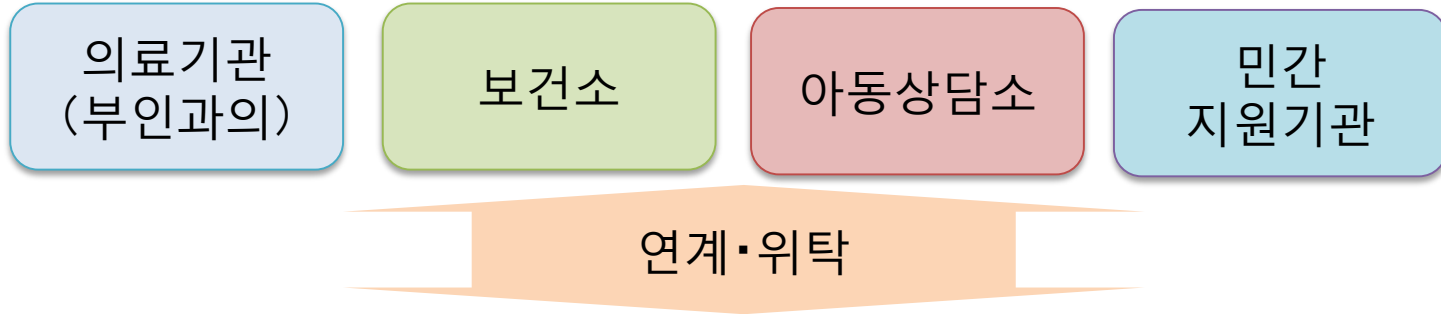
<불임전문 상담센터설치>

불임·불육에 관한 의학적·전문적인
상담과 마음고생 등에 대해 의사와
조산사 등이 상담에 대응
(주5일 개설)

이른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남성의 불임치료를 촉진


임신부터 육아기의 지속적인 지원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의 설치촉진(2015년도~)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걸쳐 지원을 하는 원스톱 거점을 정비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보건사, 조산사, 소셜워커 등



- 불임상담
- 산모건강검진
- 가정방문
- 부모학교
- 정기검진
- 예방접종
- 입양
- 육아지원
- 취업지원



▶ 이쿠짱 서비스 (2006년도)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점포 등에 의한 아이와 육아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

참가점포수
⇒ 6,300점포이상



어린이용 화장실
약 3,200곳에 설치

▶ 이쿠짱 넷 (2011년도)

육아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를 일원화



대응한 지 10년
합계 특수출생률이 상승
2004년 1.33
2015년 1.57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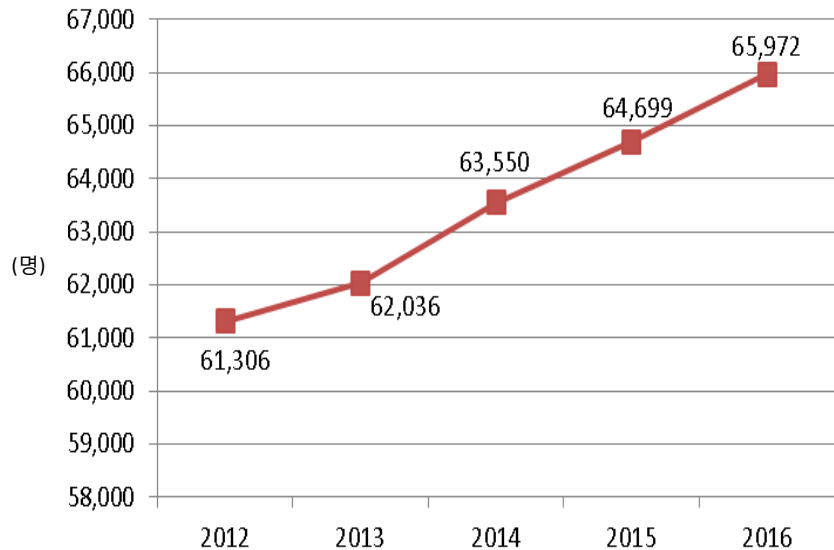
■ 보호자의 보육 수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보육의 수용처를 확보

보육수용처를 확보

<하드정비>

보육원과 인증 어린이집
신설과 정원 증가를 촉진

보육원 등 입소아동수



보육교사 등의 인재확보

<보육교사 인재뱅크>

2012년에 개설,
전임스텝을 배치
보육교사의 구직과 보육원의
구인을 매칭



2012년 7월 ~ 2016년 4월로
588명의 보육교사가 취직

히로시마현이 실시하는 선진적 대응

히로시마현사무소내 보육시설 “이쿠짱 집” (2016.3)

히로시마현과 현내기업인 히로시마 은행이 공동으로 현청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장소】 현청사 동관 1층

【정원】 18명(현, 히로시마은행, 지역정원6명 씩)

【대상】 0~2세



“이쿠짱 집”을 모델로 20개 기업에서 신규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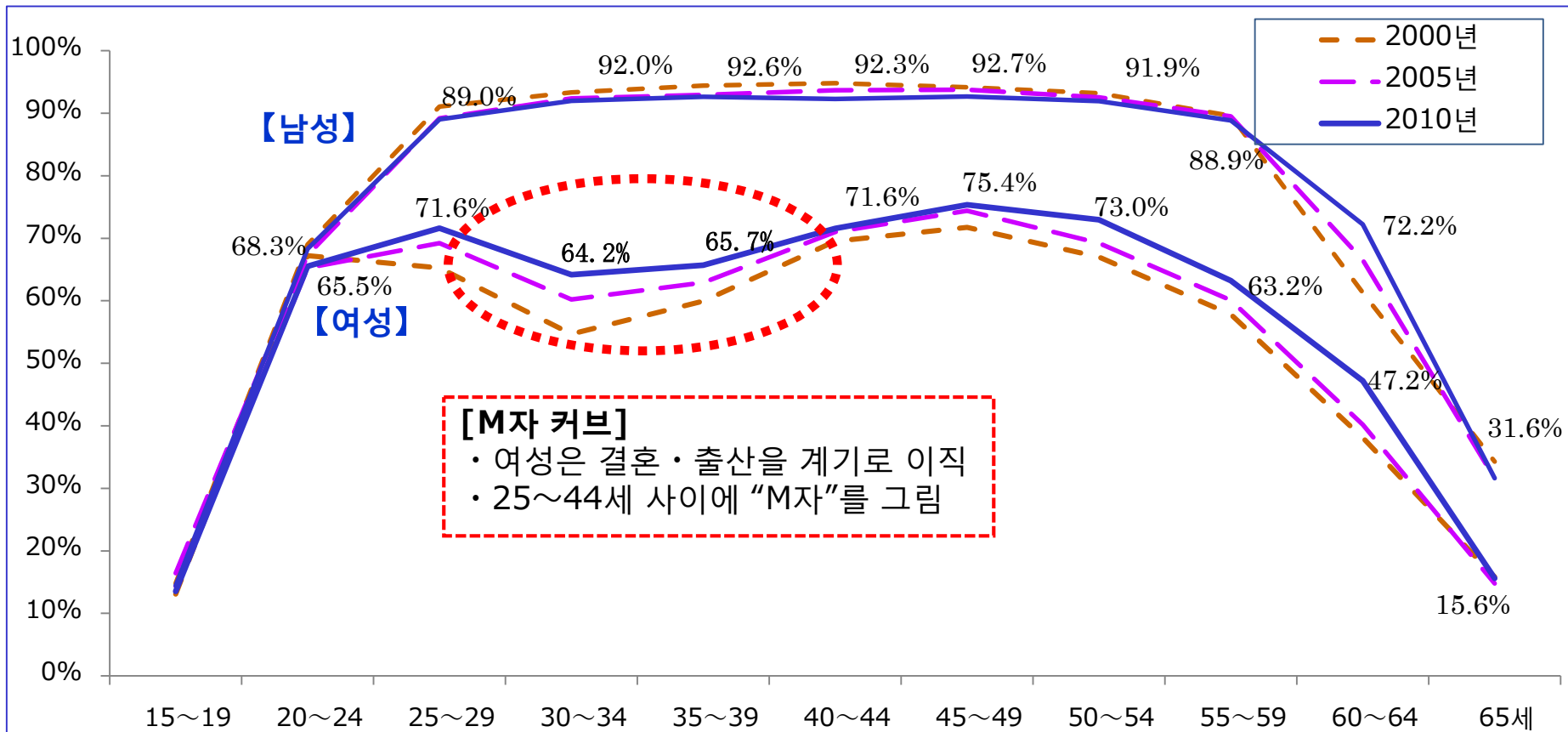
또한 현내 많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

근무방식개혁

과제분석 ① M자커브의 감소

-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예측
- 여성활약은 인재활용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인재능력을 활용

히로사마현의 연령계층별 취직률 상황(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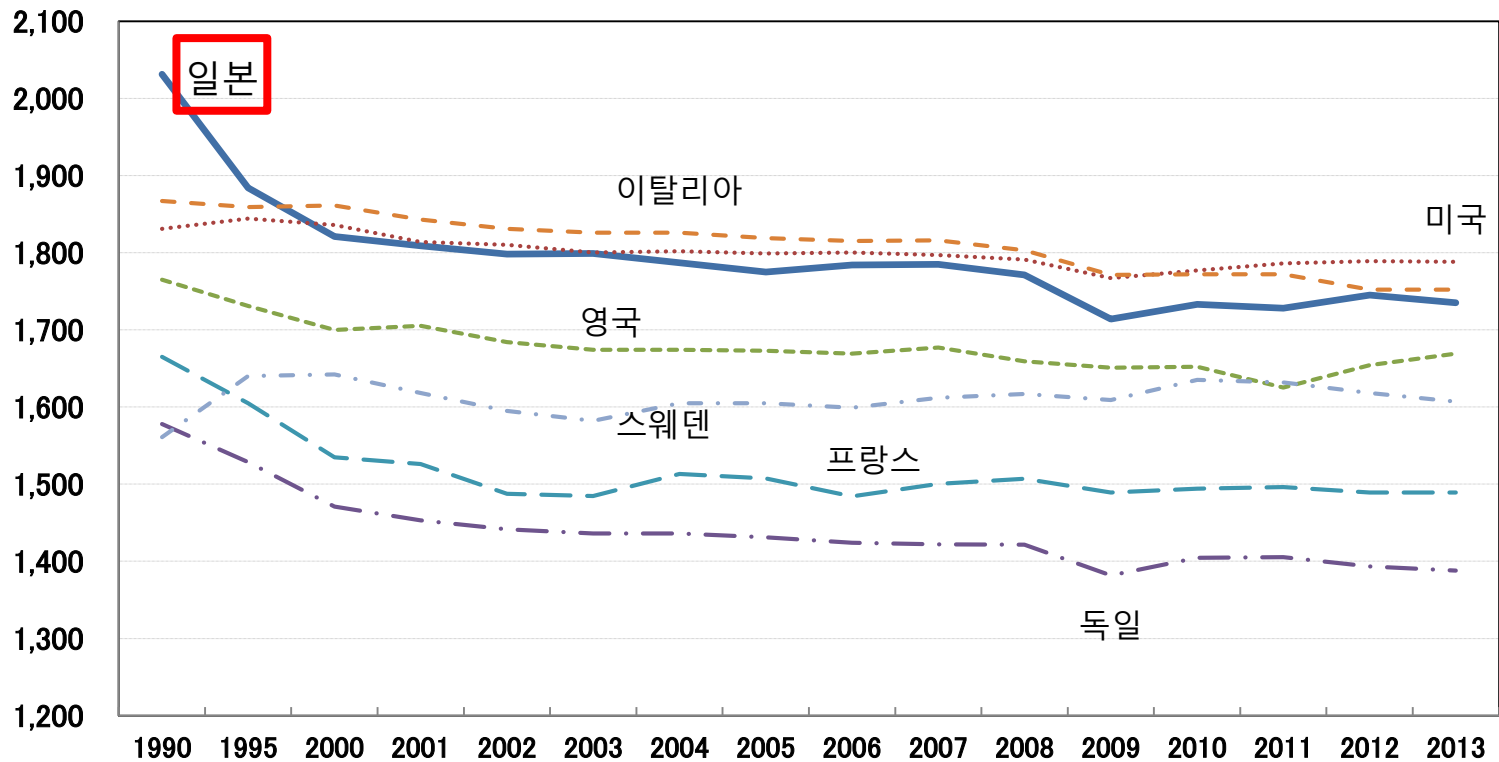


과제분석② 줄지 않는 노동시간

최근, 답보상태인 반면 주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는 8% (전국8.2%)

연간 실노동시간의 각국비교(국제비교)

(시간/년)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2015

근무방식개혁의 호순환

근무방식개혁에 대응함으로써 호순환을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

근무방식 개혁



근무방식개혁이란

각 직장에서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취득을 촉진,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 도입 등 누구나 일하기 편한 환경정비에 대응 하는 것

단시간 노동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다

자기계발의 내실화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호 순 환 을
만 들 다

새로운 발상으로
이노베이션이 창출된다
노동의 "질"이 향상된다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현대기업의 실태파악

현대기업의 근무방식의 대응 상황을 조사

■ 시기: 2016.5~6

■ 대상: 종업원수 31명 이상의 기업 등 3,094사

■ 응답수: 1,277사(응답률 41.3%)

■ 조사내용:

근무방식에 관한 제도·체제 도입, 대응 상황, 과제 등

(휴가 취득 촉진, 장시간노동 감축, 플렉스타임 등의 다양한 근무방식 등)

경영자 의식 대응 진척 정도

· 근무방식개혁 실시	35.5%
· 의의에 공감하면서도 대응에 미착수	43.8%
· 의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7%

근무방식에 대한 대응 가속화가 급선무

현청내의 근무방식개혁

ICT를 활용한 워크스타일의 변혁

“오피스”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근무방식으로 전환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청사외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업무방식으로 대응한다

변혁을 위한 새로운 대응

- 【2011년】 WEB회의 시스템 도입
- 【2012년】 텔레워크(재택근무)제도 창설
- 【2013년】 모바일형 싱크라이언트 단말을 도입
프리어드레스직장도입(일부부서)
- 【2016년】 본청관리직이 술선수범하여
태블릿을 활용



프리 어드레스 직장

육아보스(이쿠보스)의 보급확대

스스로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에 대응하는 기업경영자에 의한 조직
“**육아보스동맹 히로시마**” 멤버—**115명** (2016.10 현재)

【활동내용】

- 사회전체의 남성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 자사의 육아맨 추진 대응소개와 현내기업에 대한 보급
- 남성의 육아휴직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 기업경영자의 의식개혁과 직장의 업무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한 홍보



직장환경만들기 ~여성의 활약촉진~

여성의 재취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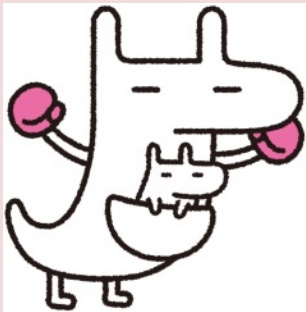
두근두근맘서포트코너

현내 2곳에 여성의 재취업상담 코너를 설치

【2015년도 실적】

상담: 1,474건

취직: 255명



분위기 조성

일하는 여성응원 릴레이세미나

kick-off 이벤트를 시작으로 현내 각지에서 릴레이세미나를 개최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

근무방식개혁추진 · 일하는 여성위원회의 히로시마

“일하는 여성응원대 히로시마”를 발전, 조직 개편 (2016.10 출범)
현내 “근무방식개혁” 및 “여성의 활약 촉진”을 일원화하여 효과적 추진

《구성단체》

경제단체

현상공회의소연합회[대표]
히로시마경제동우회
히로시마현경영자협회
츠히쿠경제연합회
현상공회연합회
현중소기업단체중앙회
현중소기업가동우회
히로시마청년회의소

노동단체

연합히로시마

금융기관

히로시마현은행협회

교육기관

인턴쉽촉진협의회

행정

히로시마노동국
츠히쿠경제산업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현교육위원회
현내 전체23시정

※ 필요에 따라 의견청취
학식경험자, 기업 등

《대응 내용》

- 현내분위기 조성
- 현내기업 등의 대응 촉진
- 기타 필요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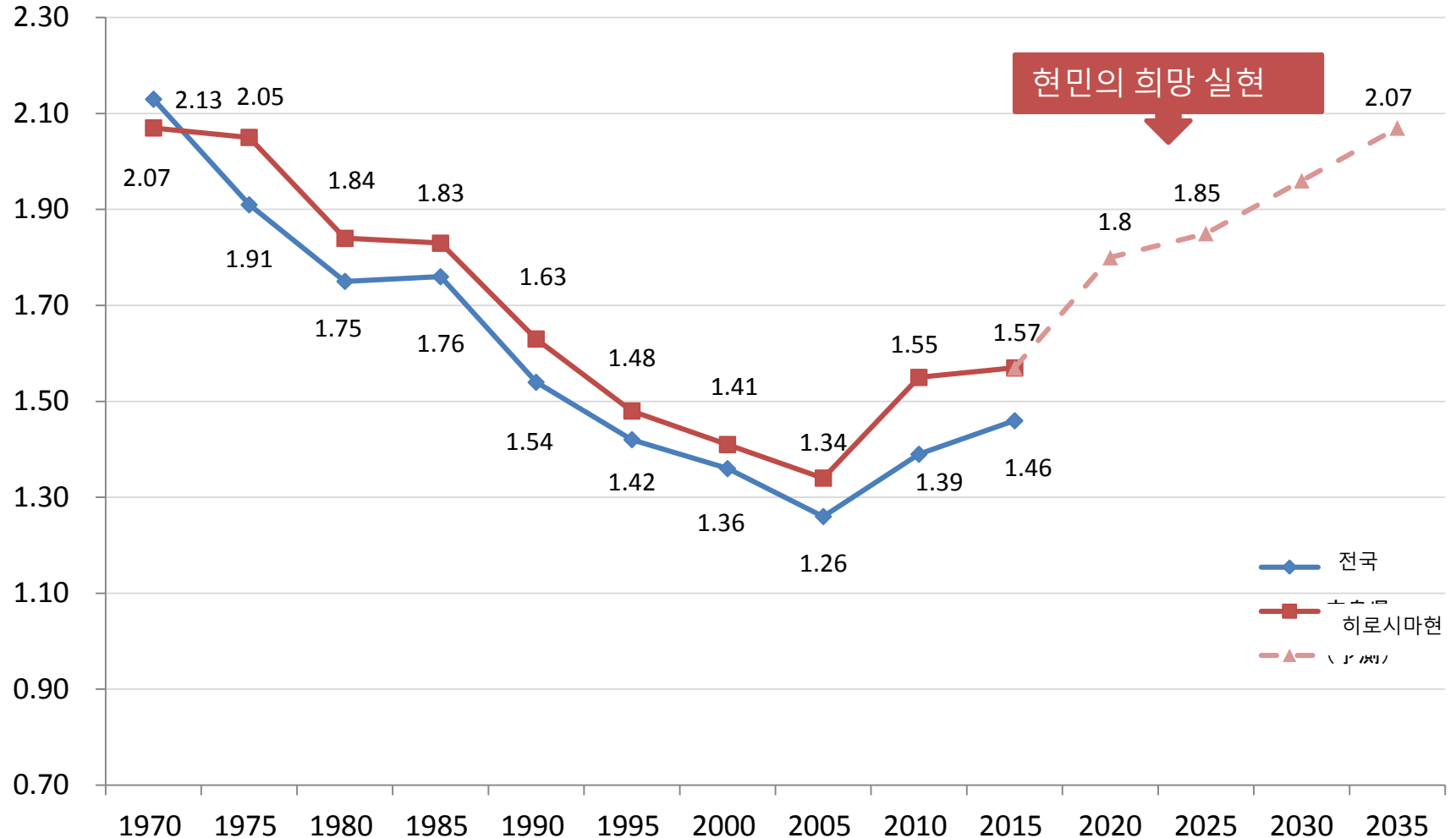


“결혼”부터 “육아”까지 끊임없는 지원과 근무방식개혁을 일원화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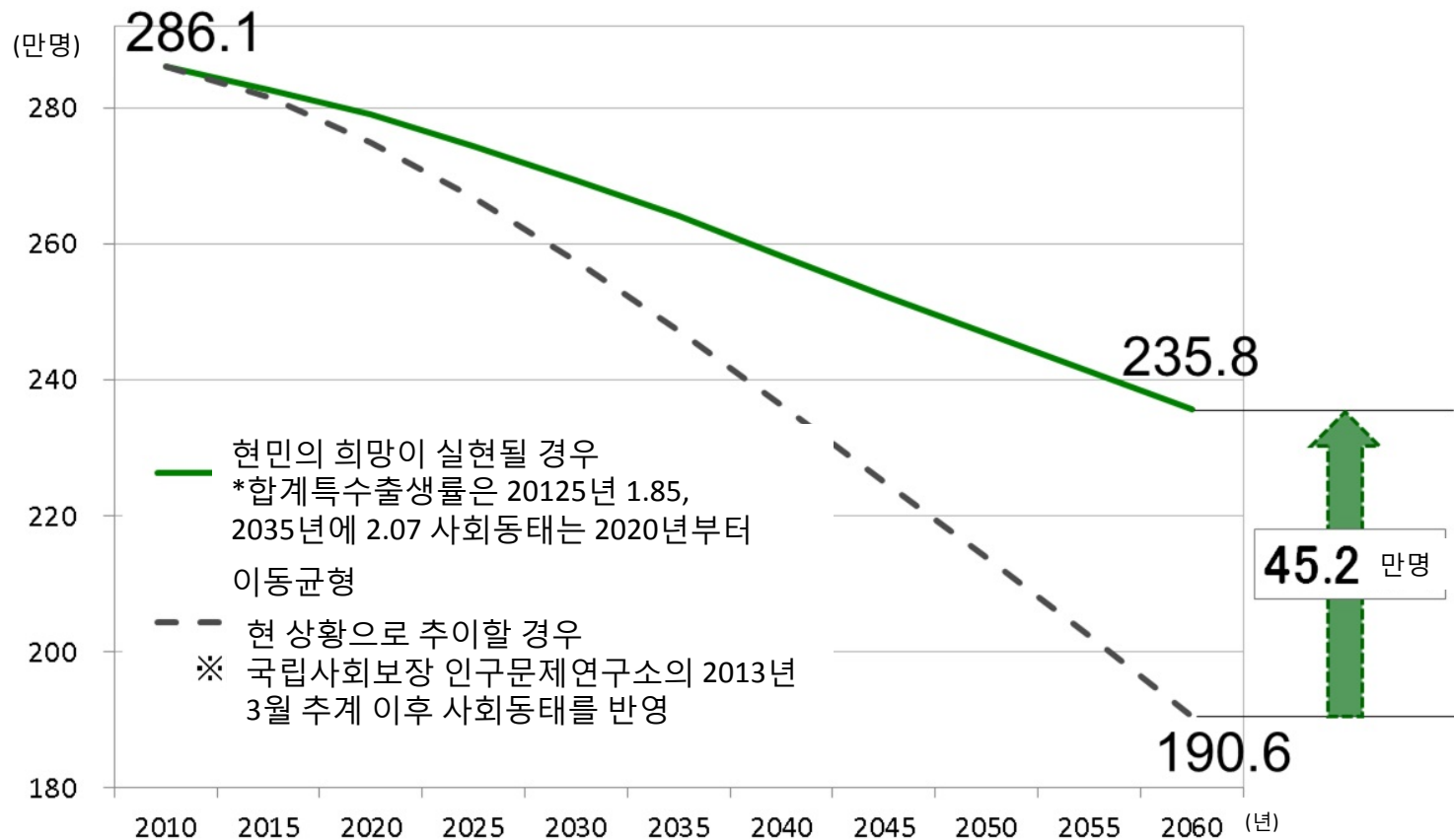
	주요성과목표	현황치	목표치 (2020년)
<div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만남·결혼 </div>	유배우자율 (25~39세)	(2015년) 여성 : 59.0% 남성 : 49.8%	63.2% 53.5%
<div style="background-color: #27ae60;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임신·출산 </div>	특정불임치료에 의한 출생수	(2015년) 184명	253명
<div style="background-color: #f39c12;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육아 </div>	육아에 즐거움과 기쁨 ·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5년) 76.0%	88% (2019년)
	언제나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5년) 50.7%	70% (2019년)
<div style="background-color: #e74c3c;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근무방식 개혁 </div>	근무방식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종업원31명이상)	(2010년) 68%	80%
	남성의 육아휴직취득률	(2010년) 68%	13%
	여성 (25~44세) 취업률	(2015년) 19.4%	73%

현민의 희망이 실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향상된 경우의 시산

2025년 ⇒ 1.85 2035년 ⇒ 2.07



-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190만명**
- 출생과 사회이동에 관한 현민의 희망이 실현됨으로써, 합계특수출생률과 전출초과가 개선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235만명이 되어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와 비교하여 **약 45만명 증가**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만나·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안심하여 임신·출산할 수
있으며 원할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고,
모든 현민의 아이와 육아를 서포트 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